

# “‘ESG 가치 확산’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 전주시, 31일까지 ‘대학생 ESG 15초 광고 공모전’ 개최... 총 6개 작품 시상 예정

전주시가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ESG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ESG 15초 광고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SG와 같이, 미래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줄 아는 ‘대학생 ESG 15초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영상(숏폼) 형

식의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ESG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도 ESG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ESG의 개념, ESG의 중요성, ESG의 실천방법 등 ESG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후 15초 이내의 영상(해상도 1920X1080픽셀)을 촬영·편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

(pny2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전 출품작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을 선정해 전주시장과 상금을 줄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유튜브

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ESG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은주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장은 “이번 대학생 ESG 15초 광고 공모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ESG 미래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전주시 대학생들과 함께 ESG의 지표 중 환경(E), 지역사회공헌(S) 분야의 의미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이 2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카카오톡 상담톡 서비스 ‘전주시 민원콜센터’ 개시

### 채널 추가 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민원 상담을 위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톡 기반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민원 상담 및 처리, 시정에 대한 궁금증 등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간 콜센터에서 맡아

온 전화 민원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담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상담톡 서비스는 카카오톡 앱 상단에서 돋보기를 눌러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 내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톡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상담톡 서비스는 시정에 대한 문의나 간단한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을 통해 문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채팅창 내에서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용도 가능해 생활불편 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채널 내 간편 메뉴를 통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민원접수도 가능하며, 채널 내 ‘소식’란을 통해 다양한 시청 홍보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 김승수 시장, 공로패 수상

### 이탈리아 피렌체한국영화제로부터 우호교류 공헌 인정받아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탈리아 피렌체한국영화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전주시는 2일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카르도 젤리 전주시장이 전주와 우호도시인 피렌체시와의 교류증진에 힘써온 점과 피렌체한국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간 국제교류 및 영화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20회를 맞은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대한민국의 영화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 소개하기 위해 개최되는 영화제로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제로, 그간 우수한 한국영화를 상영했다”면서 “전주-피렌체간 우호교류

증진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피렌체에 알리는데 협조해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제20회 피렌체한국영화제는 지난 4월 7일부터 15일간 이탈리아 라 캄파냐 공연장 등 피렌체 일원에서 개최됐다. 리카르도 젤리 조직위원장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피렌체는 이탈리아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영화, 미식, 수공예 등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유럽의 대표관광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인 전주시와 매우 닮았다”면서 “앞으로도 영화제 등을 활용한 글로벌마케팅을 강화해 한국의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전주관광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전주지역 복지·돌봄, 보건·의료, 장애·정신, 학계, 주거, 사회연대 전문가 등이 전주를 통합돌봄 전국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는 2일 전주시회신센터 다울마당에서 2022년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김승수 시장과 변재관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0개 복지·돌봄 분야, 전주시 의사회 등 11개 보건·의료분야,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장애·정신 분야, LH전북지역본부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계·주거·사회연대분야, 통합돌봄 자문위원, 보건소, 통합돌봄과 등을 포함한 행정 부서 43개 기관대표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으로’라는 비전의 전주형 통합돌봄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7대 추진과제는 △건강·의료 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75세 이상 전수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돌봄서비스 체계 정비 △혁신적인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통합돌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융합형 통합돌봄 확대·강화 △통합돌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국화를 위한 실제적 준비 구체화 등이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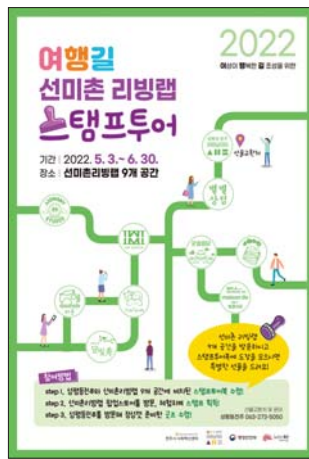
## 전주시, 여행길 선미촌 리빙랩 스탬프투어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변신한 전주 선미촌의 변화를 체험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간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한 팝업스토어(임시 상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선미촌 팝업스토어에서는 지난 3월 선미촌리빙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9개 단체들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브런치카페에서부터 공예 원데이클래스, 반려동물 용품 판매 및 카페, 지역문화 및 제로웨이스트 굿즈 만들기 등을 진행해 선미촌을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는 △문화미당의 ‘달달가게에서 예술로(로)’, △아중리마을공동체의 문화체험공간 ‘오!다음(이응다음)’, △문화아리의 ‘베종드빛깔’ △달빛수의 다시 피어나다 ‘선미촌’ △별별여의 ‘별별상점’ 운영사업 △조마니스튜디오의 창작공방 ‘조마니스튜디오’ △나눔의 ‘벳 라이프 스타일 문화공간’ △KHK의 ‘A.R.T switch’ △라온의 ‘제로웨이스트 패브리, 손뜨개 교육’ 등 9곳이다. /김윤상기자



9개 팝업스토어의 공동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이며, 매장별로 야간영업과 주말(토)영업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기념품(굿즈) 300개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평등전주와 선미촌리빙랩 9개 공간을 방문·체험해 스탬프투어 완료하고 성평등전주를 다시 방문하면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 8184호의 개별주택가격을公示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 전주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세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

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조정·公示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